
2020년 제8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회의록



2020. 11. 11.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1. 11.(수) 14:00 ~ 15:40(10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7명 등
- 안 건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검토대상 : 시민제안 10건
- 회의결과
 - 예술인 생계 안정 지원 관련 시민토론 추진
 - 결혼식 관련 시민토론 추진(7차 회의 결과와 병합)
 - 유기 토끼 관련 캠페인 기획

□ 안건 논의

1. 사회적 거리두기(결혼식)

연번	제 목	조회수	공감수	작성일	주관부서
1	결혼식 제한으로 힘들어하는 예비부부들을 도와주세요.	1611	306	2020-09-2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결론 : 시민토론 추진

- 7차 의제선정단 회의('20.10.)에서 결혼식 관련 시민토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묶어서 같이 진행

○ 안건 논의

- 최근 회의에 연속으로 올라왔던 결혼식 관련 제안이며, 지난 회의(7차) 이후, “안전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토론 기획안을 이미 구성하였음. 토론 기획안에 대한 보충의견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 작은결혼식이 많이 퍼졌으면 하는데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함

2. 예술인 생계 안정 지원

연번	제 목	조회수	공감수	작성일	주관부서
2	예술인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569	105	2020-09-29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결론 : 시민토론 추진

○ 안건 논의

-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 기준이나 데이터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예술인 당사자들의 통계와 행정관청이 가지고 있는 통계가 큰 편차를 보이기도 함. 이러한 부분을 맞춰나가는 노력도 필요함

- 예술인들이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했지만, 코로나 등으로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지원과 처우 개선이 분명 필요한 부분인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해 보임
- 제안자는 고용보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고용보험으로 주제를 좁히면 의견을 낼 수 있는 층이 많이 좁아질 것이고, 좀더 넓게 주제를 넓혀 접근했으면 함
- 고용보험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가지고 논의하면 공론화가 쉽지 않고, 창작활동이나 공연 지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시민들과 논의하는 것이 좋겠음. 현금지원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봄
- 공론장 개최에 동의하는데, 너무 폭넓게 가져가도 뻘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음. “문화예술인 생계 안정, 무엇을 해야 할까” 정도로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초점을 모았으면 함. 쟁점들이 정리되면 예술인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음
- 제안자의 취지도 예술인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것 같음. 일반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예술인들 중심의 공론장이었으면 함
- 사실 예술인들이 사회적 취약층이나 지원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은 있어서 이를 재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 될 수도 있음
- 공론장 운영시 문화예술인 단체 등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겠음
- 참고로 예술계 표준계약서 문제가 있을 텐데 계약서 문안을 만들어 놓기만 해서는 확산되기 어려움. 실제로 법률가들이 붙어서 계약 자문과 협의를 해 주는 식의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임
- 서울시 예술인플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시행 등 예술인 지원에 관한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거버넌스 구조도 자리잡은 상태임. 민주주의 서울은 온라인 공론화를 기본으로 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기존에 해 오던 부분들과 연계하여 토론을 기획해 보겠음
- 큰 틀에서 문화예술을 위한 생계 안정을 주제로 서울연구원,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론장을 기획하고자 함

3. 위반 건축물

연번	제 목	조회수	공감수	작성일	주관부서
3	위반건축물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해	482	104	2020-10-09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결론 : 토론에 부치지 않음

○ 안건 논의

-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법령이 개정된 사항임
- 건축물 대장 자체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시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음
- 공론장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도 어렵고 부동산중개인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함. 교육을 강화했으면 함
- 아파트, 주택 할 것 없이 공공연한 불법 사항들이 있음. 전체 시민의식에 관한 사항임

4. 지하철역 신설 요청

연번	제 목	조회수	공감수	작성일	주관부서
4	열악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하 철역 신설 요청	648	111	2020-10-17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결론 : 토론에 부치지 않음

○ 안건 논의

- 지하철역 신설은 법적으로 불가하고, 버스정류장 설치 등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관할 구청과 담당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안임

5. 토끼 유기 방지

연번	제 목	조회수	공감수	작성일	주관부서
5	공원의 토끼 유기를 막고 공원에서 사는 토끼들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제안합니다.	1952	276	2020-10-17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결론 : 토론에 부치지 않음**

- 공론장은 개최하지 않으나 캠페인으로 기획·진행

○ **안건 논의**

- 우리가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주제, 쟁점이 있거나 이견이 있는 주제는 공론화가 필요한데, 동물 유기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인식도 마련되어 있고 담당 부서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에 실효성이 없어 보임
- 반려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은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고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어서 민주주의 서울에서 꼭 공론화해야 할 필요는 없음. 다만, '토끼'에 초점을 맞추면 시민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되니까 홍보를 진행하는 것은 좋겠음
- 공론화보다는 캠페인성 주제로 가져갔으면 함. 토끼를 중심 주제로 했으면 함

6. 공공재개발 관련

연번	제 목	조회수	공감수	작성일	주관부서
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공공재개발 추진	438	146	2020-10-2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7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공공재개발 꼭 이루고 싶습니다.	318	131	2020-10-2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8	원효로1가 공공재개발지정요청	527	146	2020-10-25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결론 : 토론에 부치지 않음**

○ **안건 논의**

- 현재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접수가 끝났고,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론화 대상이 아님

7. 서남집단에너지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연번	제 목	조회수	공감수	작성일	주관부서
9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사업 환경 평가 초안 전면 재검토 명령 요 청	5082	1280	2020- 10-26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결론 : 토론에 부치지 않음**

○ **안건 논의**

- 갈등조정 담당부서에서 개입할 사항이며, 단순 찬반 논의로 가져갈 사항은 아님
- 공익과 사익의 충돌 사안인데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야 함. 다수의 시민이 개입하는 방식은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사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의제를 제출할 수 있는 통로로 기획되었는데, 의제선정단에 올라오는 주제를 보면 민원성이나 갈등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음. 좀더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서울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갈등 관련 사안은 처리 경로를 명확히 보여주는게 좋겠음
- 민주주의 서울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함. 쓰레기 소각장 같은 갈등 사안도 포함하는 방향이 맞다고 봄. 그런데 내부 운영 과정과 시간 절차 등이 서로 맞지 않음. 갈등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긴 호흡으로 만나면서 풀어야 하고, 민주주의 서울은 그렇지 않음. 다만 민주적으로 결판을 내고 싶으면 민주주의 서울에서 다루는게 맞다고 봄. 소소하게 아이디어를 모으고 캠페인을 모으는 장으로 갈지, 갈등 사안도 적극적으로 포괄하면서 갈지 내년 계획 세울 때 명확하게 가야 함.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제선정단도 '이런 것들은 여기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들어오는게 맞는 것 같고' 식의 혼란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음

- 이런 갈등이 사실 반복되고 있는데, 서울시민들의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함. 행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쌓여온 불신의 문제도 있을텐데,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은 민주주의위원회라는 파트에서 담당할 수도 있다고 봄

8. 주민자치 예산

연번	제 목	조회수	공감수	작성일	주관부서
10	서울형 주민자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675	127	2020-10-2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결론 : 토론에 부치지 않음
- 안건 논의
 - 현재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 있는 사항이고, 다양한 내부 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공론화는 적합하지 않음
 - 주민자치회가 아직 초기 단계인 점, 주민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필요함

<회의 종료>